

'95 최우수지부로

선정된 홍성지부

— 회원간의 조화와 단합이 중요 —

취재 : 추용진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팔리에 소재한 홍성지부(지부장 : 김건태)는 지난 2월 16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95년 전국 최우수지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본회가 선정하는 최우수지부의 선정기준은 전국 90여개의 지부중에서 회원확충, 돼지고기 소비홍보 등의 지부행사, 임직원 연수회 및 정기총회 참석 실적, 상반기 회비 완납여부를 평가하여 높은 성적을 올린 지부에게 선정하는 것이다. 홍성지부는 이번 95년 최우수지부상 수여뿐만 93년에는 우수지부로 선정되고 86년에는 회원확충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

83년도 1월 26일 회원 18명으로부터 시작된 홍성지부는 현

재 180여명의 회원이며, 홍성지부의 임원은 김건태지부회장을 포함하여 역대 회장 6명, 이사 1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총무 1명으로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건태 지부장은 "홍성지부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환갑을 넘으신 회원들과 30대 중반의 젊은 회원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양돈진흥사업회



최우수지부가 되기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은 김건태 지부장(우)과 한흥재총무(좌), 차은숙양

의 사업으로 판매하는 사료의 30%를 홍성지부가 소비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회원들간의 단합을 알 수 있다”라고 홍성지부의 특징이 회원들간의 조화와 단합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홍성지부는 지난해 10월 축협중앙회의 돼지생산원가 발표와 관련하여 축협중앙회, 재정경제원 등 중앙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생산원가를 조정하는데 기여하고 비육돈 1두당 사육비(90kg기준)를 산출하여 본회 회원들과 외부에도 배포를 하고 있다고 한다(표1 참조)

비육돈 두당 사육비(1995년도)

| 항목 | | 90kg기준,단위(원) | | | | 비고 |
|-------------|-----------|--------------|---------|---------|---------|-----------------------|
| 사육규모 | 100두 미만 | 100두-500두 | 500두 이상 | 평균 | | |
| 경 | 가 축 비 | 44,721 | 37,393 | 34,759 | 37,138 | -95년도 사료인상분 6,000원 포함 |
| | 사 육 비 | 67,655 | 63,910 | 62,377 | 69,600 | |
| | 수 도 광 열 비 | 588 | 545 | 499 | 529 | |
| | 방 역 치 료 비 | 1,452 | 1,400 | 1,336 | 1,378 | |
| 영 | 수 선 비 | 1,018 | 901 | 735 | 890 | |
| | 소 농 구 비 | 151 | 120 | 106 | 110 | |
| | 제 재 료 비 | 571 | 512 | 437 | 489 | |
| | 고 용 노 임 | 1,202 | 2,915 | 4,455 | 3,439 | |
| 비 | 차 입 금 이 자 | 176 | 370 | 580 | 451 | |
| | 기 타 잡 비 | 1,485 | 1,303 | 1,004 | 1,190 | |
| | 상 각 비 | 3,173 | 2,716 | 2,114 | 2,513 | |
| | 건 물 | 2,038 | 1,862 | 1,525 | 1,750 | |
| | 대 농 구 | 1,135 | 854 | 589 | 763 | |
| | 소 계 | 122,192 | 112,165 | 108,448 | 111,727 | |
| 자 가 노 력 비 | 27,429 | 15,304 | 9,071 | 13,672 | | |
| 고 정 자 본 이 자 | 5,565 | 5,247 | 4,349 | 4,983 | | |
| 유 동 자 본 이 자 | 2,738 | 2,519 | 2,386 | 2,507 | | |
| 토 지 자 본 이 자 | 546 | 457 | 324 | 406 | | |
| 비 용 합 계 | 158,470 | 135,692 | 124,578 | 139,195 | | |

66

본회가 선정하는

최우수지부의 선정기준은 전국

90여개의 지부중에서 회원확충, 돼지고기

소비홍보 등의 지부행사, 임직원 연수회 및 정기총회

참석 실적, 상반기 회비 완납여부를 평가하여 높은 성적을 올린

지부에게 선정하는 것이다. 홍성지부는 이번 95년

최우수지부상 수여뿐만 93년에는 우수지부로

선정되고 86년에는 회원확충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

99

김건태지부장은 “돼지고기의 가격이 다른 생활품에 비해 1/10도 오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재경원에서 축협의 돼지

생산원가 발표를 보고 물가상승의 원인인량 오해를 해서 양돈 분야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재경원의 물가국장, 과장계장을 찾아가 양돈산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하였고 그후로부터 양돈산업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해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밖에도 재경원의 도움으로 MMA물량 수입 감소와 오제스키병 박멸대책예산 확보에도 기여한 김건태 지부장은 “양돈업은 생업이고, 양돈업 전체가 잘되면 나 자신도 혜택을 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양돈업에 매달리게 된다.”라고 양돈산업에 대한 애정을 표시하였다.

홍성지부가 최우수지부로 선정된 원인에 대한 질문에 김건태지부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는 회원들이 양돈협회에

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홍성지부의 월례회 참석인원은 100~120명 내외인데, 회원들은 회의에 참석해야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다. 특히 매년 1년에 한번 개최하는 세미나를 작년에는 6회를 실시했다. 올해에도 6회 정도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고 양돈협회에 오면 양돈 현황을 알고 배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둘째는 인적구성이 중요하고 열심히 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역대회장, 이사, 회장, 부회장, 총무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 23명이 사전에 논의를 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전체를 이끌 수 있다. 특히 30대의 젊은 회원들이 양돈에 열심히 종사하고 있어 지부의 활력소 역할을 한다.

셋째는 사료,약품,소독약 등을 공동 구매하여 회원들과 나누어 쓴다.

홍성지부의 젊은 양돈인중의 한 사람인 한홍재 총무는 정부에 대한 바램을 “양축, 양돈을 하는 사람의 어려움인 환경문제에 대하여 자금보조와 상환기간 연장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안정적으로 양돈을 할 수 있도록 생산비 이하로 떨어질 때는 수매비축을 하여 일정



◀ 홍성지부는 회원동가에게 돼지사양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한 마진이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건태 지부장은 “가축분뇨 처리는 국가차원에서 공동처리 시설 등을 설치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면세기준은 최소한 전업농인 돼지 1,000두 규모를 되야하고, 축협공판장에서 돼지 경락가격의 폭이 커서 농가들이 불안하고 양축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1일 단가폭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업·생업인 양돈농가와 발맞추어 변화하는 중앙회가 되어야 한다”고 본회 신입 감사로서의 충고를 잊지 않았

다. 홍성지부의 사무실이 비좁아 회원 모두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는 김지부장은 양돈산업의 축이 되어 하나하나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부로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